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미국증시 FOMC 경계감 속 전장 후약

- 미국 증시 혼조: 다우 +0.64%, 나스닥 -1.15%
-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 완화 가시권..유가 80달러 하회
- FOMC 진행 중..케빈 워시 의장 점도표 제출 거부 가능성

Summary

미국증시 혼조: 다우 +0.64%, 나스닥 -1.15%

6월 16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FOMC의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둔 경계감 속에 전일의 전방위적 상승을 뒤고 하고 혼조 마감.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지수는 초반 일제히 상승 출발했지만 AI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차익 매물 출회에 전장 후약의 흐름으로 지수별 혼조 마감함. 다우지수는 전일에 이어 추가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를 재차 경신했지만 여타 주요 지수는 약세.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64% 상승한 51,999.67에 마감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S&P500지수는 0.57% 하락한 7,511.35에 거래를 마감. 나스닥 지수는 1.15% 하락한 26,376.34에 마감. 나스닥100 지수도 1.89% 하락했고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도 0.87% 약세 마감.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 VIX는 1.30% 상승한 16.41에 거래를 마감.

(다우 +0.64%, 나스닥 -1.15%, S&P500 -0.57%, 러셀2000 -0.87%)

WSJ “19일,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 완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합의 내용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 직후 이란산 석유 판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즉시 발효하기로 했다고 보도. 보도에 따르면 제재 면제 대상에는 이란산 석유 판매에 수반되는 금융 거래, 운송, 보험 등의 관련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고 함. WSM은 이에 대해 이란이 갈등 국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초기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평가. 이 소식이 공급 병목 완화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 국제유가는 전일 대비 낙폭을 추가로 확대함.

이미 양국이 전자서명을 완료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양국은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향후 60일간 핵 문제와 관련한 최종 합의, 또 미국이 무과하는 대이란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목표로 본격적 세부 협상이 들어가게 됨.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예루살렘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과 늘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이란을 비롯한 이란 대리 세력들과의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레바논 안보지대에 필요한 한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밝힘. 현재 이스라엘 지도부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상황.

미국은 이번 MOU 합의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향후 세부 협상 과정에서는 버티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철수를 요구하는 이란의 목소리가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함.

BOJ 금리인상..FOMC 진행 중

FOMC 회의가 현지시각 16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일 일본 중앙은행(BOJ)은 이틀간의 금융 정책 결정 회의 끝에 기존 0.75%였던 정책 금리를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로 25bp 인상했으며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 그간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일본은행은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거세지면서 더 이상 통화정책 정상화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함. 일단 예상된 한 번의 금리 인상으로 엔화 약세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음. 다만 향후 추가 인상이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는 글로벌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에서 향후 주목할 요인.

한편 취임 후 처음 주재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됨. CNBC는 이번 FOMC에서 공개되는 경제전망요약(SEP)의 점도표 작성에 워시 의장이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 워시 의장이 점도표와 포워드 가이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져왔다는 점에 주목. 워시 의장은 그간 연준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정책 결정의 유연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해왔던 바 있음. 이번 회의는 연준의 금리 동결이 고정 사실화 되는 가운데 첫 FOMC에서 워시 의장이 향후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주목해왔던 바 있음. 따라서 그간 중요한 시장과의 소통 수단으로 여겨져왔던 점도표 제출을 그가 실제 거부할 경우 향후 워시 의장 체제에서 연준이 시장과 소통하는 도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시타델 증권은 연준이 이르면 9월부터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함. 시타델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지속적이고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연준이 올해 9월과 12월, 나아가 2027년 3월에 걸쳐 단계적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

미국 5월 수입물가 시장 전망치 상회

미국의 올해 5월 수입 물가 상승률이 연료 수입 가격 상승 등을 중심으로 시장 예상을 웃뽀. 노동부가 집계한 미국의 올해 5월 수입 물가지수는 전달 대비 1.9% 상승해 직전달 상승률 2.0%보다 둔화했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1.0%는 크게 상회. 세부적으로 석유 수입 가격이 13%, 천연가스 수입 가격이 10.4% 각각 상승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자본재 수입 가격도 컴퓨터/주변기기/반도체, 과학/의료 장비, 산업/서비스용 기계 가격 상승을 중심으로 1.3% 상승함.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수입 물가는 6.7% 급등해 지난 2022년 8월 7.7% 상승 이후 최대폭 상승.

한편 미국의 신규 주택 건설 경기는 다소 얼어붙어있음을 지표로 확인. 미국의 5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공개. 미국 상무부와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5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연율 환산 기준 117만 7천건으로 전달 대비 15.4% 감소. 시장 예상치 143만건도 하회. 1년 전에 비해서는 8.7% 감소.

특징종목

AI 기술주 차익 매물 출회

AI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고 반면 경기 소비재와 금융주 등은 내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 다우지수는 상승권에 머무른 반면 나스닥 지수는 완연한 전장 후락 흐름 속에 하락 마감함.

무엇보다 정규 거래 사흘째를 맞은 스페이스X(-4.83%)가 이날 옵션거래까지 시작한 가운데 거래가 크게 몰렸고 7월 3일 나스닥 100 편입까지 앞두고 있어 편입 자금 마련을 위해 기존 주도주군에서 차익실현에 나선 기관 투자자 움직임이 여타 AI 기술주 전반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임. 스페이스X는 장 중 시가총액이 2조 9300억 달러까지 불어나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 순위를 넘어서기도 했음. 종가 기준으로는 고점에서 오름폭을 줄였지만 시총 기준 아마존은 제침.

스페이스X는 인기 AI 코딩 에이전트 '커서'를 개발한 모회사 소프트웨어 기업 애니스피어를 60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히며 기업용 AI 서비스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엔비디아(-2.37%), 브로드컴(-4.3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6.18%), AMD(-7.30%), 인텔(-8.46%), 텍사스 인스트루먼트(-2.44%), 퀄컴(-3.05%), 온 세미컨덕터(-6.08%), 램 리서치(-5.03%),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3.00%), KLA(-7.45%), 샌디스크(-5.52%) 등 반도체 업종 내 종목군 대부분이 하락. 퀄컴(-3.05%)이 AI 반도체 스타트업 텐스토렌트를 80억~100억 달러에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 이후 퀄컴이 스마트폰 칩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AI 가속기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퀄컴이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지만 역시 차익 매물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

다만 웨스턴디지털(+4.22%)과 시게이트 테크놀로지(+1.23%) 등 스토리지 종목군은 차별화된 강세. AI 데이터센터 증설이 이어지면서 HBM과 고성능 저장장치 수요가 동시에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읽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5.71% 하락했고 SMH(-4.81%), SOXX(-5.92%), DRAM(-4.15%) 등도 적지 않은 폭 하락.

이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5.08%), 코히어런트(-7.50%), 루멘텀 홀딩스(-8.55%), 코닝(-5.57%) 등의 관련주도 동반 하락.

소프트웨어주도 상승세 꺾여

한편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개별 기업별 이슈들이 주목받은 가운데 전일의 상승을 뒤로 하고 반락. 마이크로소프트(-1.48%)는 보안 우려를 이유로 오라클(-2.24%) 데이터센터 임대 계약을 철회했다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가 있었음. 이 매체는 관계자를 인용해 오라클이 미국 정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 추가에 소극적이었다고 전했으며 철회된 거래 규모는 30억 달러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함. 한편 악시오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사용량 기반 요금제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코파일럿 코워크의 저비용 옵션을 위해 덤시크의 인공지능 모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현재 코파일럿 코워크에는 엔트로픽과 오픈시가 개발한 모델이 사용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몇 주 안에 코파일럿 코워크의 저비용 버전을 선보일 예정.

팔란티어(-1.08%)는 프랑스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국내보안총국이 미국 팔란티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대신 자국 찹스비전을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힘. 유럽연합이 미국 기술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으로 세바스티앙 르코르뉴 프랑스 총리는 유럽 기술 주권의 일환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아울러 2030년까지 시에 추가로 6억 5,500만 유로를 투자한다고 밝힘.

클라우드스트라이크(-1.94%), 세일스포스(-1.73%), 서비스나우(-2.71%) 등도 대체로 약세.

이외 특징주

유가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 우려 완화, 그로 인한 소비 심리 개선 등에 대한 기대로 금융주가 강세. JP모건(+3.68%), 비자(+2.87%), 마스터카드(+2.18%), بانک오브아메리카(+1.74%), 웰스파고(+2.30%).

알파벳 구글(+1.06%)은 안드로이드 OS의 최신 메이저 업데이트인 안드로이드 17을 출시. 부모 통제 기능이 확대된다고 밝힘. 또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기기 사용 환경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미국 디지털 웰빙 기금을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증액한다고 밝혀.

스냅(-9.63%)은 첫 소비자용 증강현실 글래스 스펙스를 공식 공개하고 애플(+0.95%), 메타 플랫폼스(+1.13%)의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와 경쟁하게 된다고 밝혀. 다만 주가는 크게 하락했으며 메타와 애플은 오히려 강세.

모더나(+6.27%)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독감 백신 승인 기대감에 강세. 오는 18일 예정된 FDA 백신/관련생물학제제 자문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공개된 문서에서 FDA 실무진이 모더나의 계절성 독감 백신 후보물질인 ‘엠폴루시바’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도했다며 효과를 지지한 것으로 드러나.

일라이 릴리(-0.61%)는 비마약성 만성 통증 치료제 개발사 4E 테라퓨틱스 인수 발표 이후 약세. GLP-1 비만 치료제에 편중된 매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신경 과학 파이프라인을 보강하기 위한 행보이나 인수 비용 지출 리스크와 신약 개발의 높은 불확실성이 부각돼 장기

수익성 개선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짐.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0.72%)는 요금제를 단순화하고 가입비와 기기 업그레이드 수수료를 폐지하는 한편 할인 혜택과 특전을 제공하는 새로운 로열티 프로그램을 선보임.

라이언스게이트 스튜디오스(+13.85%)는 넷플릭스(-3.61%)의 인수 가능성 보도 이후 급등. 넷플릭스는 여러 미디어 기업들과 함께 라이언스의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으나 아직 공식적 인수 의사 표명은 나오지 않음.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제유가 나흘째 하락..80달러 하회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재료로 한 하락세를 지속함. 나흘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이날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양측의 종전 양해각서(MOU) 정식 서명식 직후 미국이 이란의 원유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오면서 공급 증가 가능성에 유가 낙폭이 더 커짐.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19일 서명 즉시 발효되는 이 조항에 이란의 원유 판매를 위한 은행 거래와 해상 운송, 보험 등의 서비스도 함께 포함된다고 보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5.82% 하락한 배럴당 76.05달러에 마감했으며 최근월물 종가 기준 3월 4일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를 하회. 브렌트유 8월물 역시 5.06% 하락한 배럴당 78.96달러에 마감해 지난 3월 2일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를 하회.

국제 금가격은 최근 급등 이후 숨 고르기 양상으로 보합권에 머무름. 시카고 파생 상품 거래소 그룹(CME) 산하 금속 선물 거래소(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0.06% 상승한 트로이 온스당 4,354.40달러를 기록함. 금 선물 가격은 지난 이틀간의 반등세로 6% 가까이 상승한 바 있음.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온스당 70달러 초반대에서 보합세.

국채금리, 장기물 중심 하락

미 국채 금리는 FOMC의 금리 결정과 신임 의장의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가운데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국채금리도 이에 연동해 하락했고 이날 진행된 20년물 국채 입찰이 호조를 보인 점도 국채금리 하락 요인(국채 가격 강세 요인)으로 작용함.

2년물 국채금리는 1.5bp 하락한 4.0516%를 기록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3.4bp 하락한 4.4394%를 기록. 30년물 국채금리는 3.5bp 하락한 4.9434%를 기록함.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이날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40%대로 전일보다 소폭 낮춰 반영했으며 연내 한 번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42%대로, 두 번 인상할 가능성은 16%대로 각각 반영함. 연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0%로 집계됨.

달러 가치, 유가 하락에 약세

미 달러화 가치는 국제유가 하락과 맞물려 하락. 오후 들어 이란산 원유 유입 가능성에 국제유가가 낙폭을 키우자 달러 가치도 약세 폭을 확대.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DXY)는 99.565로 전장 대비 0.142% 하락. 유로-달러 환율은 ECB 주요 인사들의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확산에 대한 경고가 연일 등장하는 가운데 0.199% 상승했고 파운드-달러 환율도 0.113% 상승해 달러 대비 유로와 파운드 강세를 반영함. 다만 전일 일본은행(BOJ)이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엔화의 약세는 오히려 강화됨. 달러-엔 환율은 0.049% 상승한 160.467엔으로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160엔대 중반까지 상승.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1,511.60원에 마감한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3.30원 하락한 1,508.30원에 마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30원)를 감안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증가 대비 1.50원 하락한 1,5068.80원에 마감.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